

**2022**

2022.05.18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17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John 14:17

---

## 01 HIS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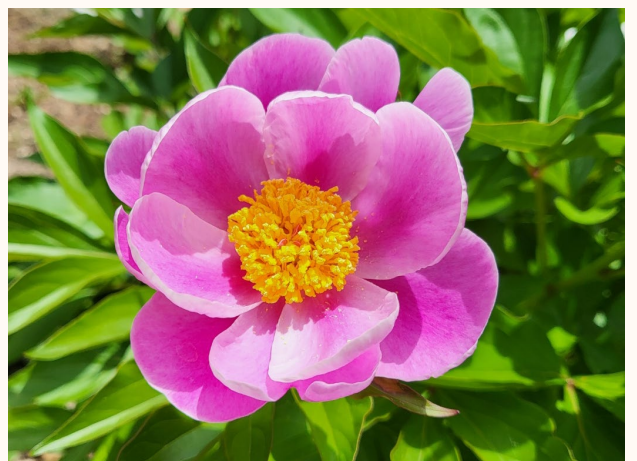
---

## 02 Devotion



---

## 03 HIS Spotlight



04

General News



07

Library News



05

MHS News



08

Nurse's Office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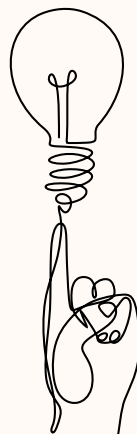
06

Counselor's Office News



09

Creative Corner



#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 God's Grace and Thanksgiving

---

By **한병철 | 행정실장**  
Mr. Byung Chul Han · Business Director

**HIS**  
**Message**

01

한 번씩 새벽에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대로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 전에도 새벽에 잠이 깨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고 성경을 읽는 중에 다음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3~4)”**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중에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올라 햇살이 창틀을 넘어 제 눈에 비치는 순간, 제 안에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낮에 인간들의 소음으로 잘 듣고 깨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항상 충만하게 존재하는구나. 그러자,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새롭게 다가오며 다음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There are times when I wake up at dawn, can't sleep back, and stay awake till morning. At those times, I read God's words and pray. A few days ago, I woke up at dawn and while reading the Bible to calm my unknown anxiety, I felt the following verse tapping on my heart:

**"There is no speech or language where their voice is not heard. Their voice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In the heavens he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Psalm 19: 3-4)"**

While meditating on the meaning of this verse, the morning sun rose and the sun shone on my eyes beyond the window frame. And there was a small realization in me. The word of God or God's grace always abounds in the whole world although I could not hear or appreciate it well during the daytime due to the noises humans make. Then, all things in my life came anew to me as ones I received from the Lord by his grace, and I confessed my gratitude to God as follows: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 교통지도를 하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님  
주신 사계절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학교 채플에서 울리는 학부모님들의  
찬양과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직원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같은 꿈을  
꾸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I am thankful that I can welcome the dawn with Your  
words and prayers;

I am thankful that I can meet our students, who are  
growing day by day, every morning;

I am thankful that I can remember God's grace  
everyday in all seasons on the campus of Handong -  
God's University;

I am thankful that I can hear HIS parents' voices of  
praises and prayers from the chapel every Wednesday;

I am thankful that I can see teachers who are striving to  
teach students in God's word with a heart for the next  
generation;

I am thankful that I can work with staff members who  
are devoted to their works and joyfully taking part in  
God's feast;

I am thankful that our students are growing as agents  
for God's Kingdom, who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s  
of this generation but discern them by His word;

I am thankful that there are fellow workers all over the  
world who work and pray diligently with one heart to  
raise a generation of faith who testify to God.

I hope that the lives of our beloved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will be filled with the realization of God's  
grace and confessions of gratitude!

# 선택의 감사

Gratitude is Choice

---

By 박성민 | 중고등 성경교사

Mr. Sungmin Park · MHS Bible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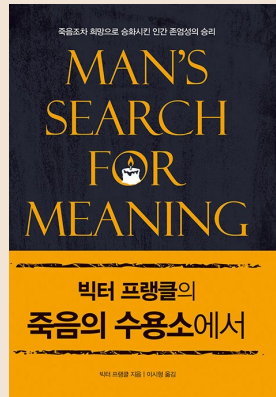
# Devotion

# 02

2차 세계 대전 당시, 악명 높은 독일군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헤’ 가스실에서 생존했던 유대인이자 스위스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적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나치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인가를  
고발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



사람이 붕괴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가 경험한 수용소의 삶은 독가스, 배고픔,  
추위, 고된 노동 등 죽음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일 도살을 당하는 동물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극한의  
삶의 환경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즉, 독일 나치군이 비록  
자신의 몸을 감금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희망에 대한  
삶의 태도는 빼앗아 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아닌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권력자의 삶을 사는 자일지라도, 그 삶의  
태도가 비관적이라면 그 삶은 얼마든지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태도가 희망적이라면 그 인생은  
언제든 행복과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During World War II, there was a Jew and Swiss psychologist named Victor Franklin who survived in the gas chambers of Auschwitz, the infamous German concentration camp for Jews. In a book called 'Death Camp', this man wrote about his experiences of how he survived in a concentration camp. The point of this book is not about accusing the Nazis of how cruel and bad they are, but rather on how people can find meaning in life in extreme ordeal without breaking down. The life in the camp he experienced was a series of throes of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borders of death, such as poison gas, hunger, cold, and hard work. However, there were people who did not lose hope and courage in a situation where they could be killed at any time, and in a situation where they were treated worse than the animals being slaughtered every day. Franklin argues that those who held onto the meaning of life without losing hope were able to survive. He continues: “If there is one thing in life that no one can take away, it is the freedom to choose an attitude toward life.” Although the German Nazis took away many things from them, they could not take away their hope.

Here we can see that it is our attitude, not the circumstances of our life, that takes us to “life.” Even a rich person who possesses many things can live a life of misery and hopelessness if he or she does not have the right attitude. 1 Thessalonians 5:16-18 says: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everything,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Here we need to remember that 1 Thessalon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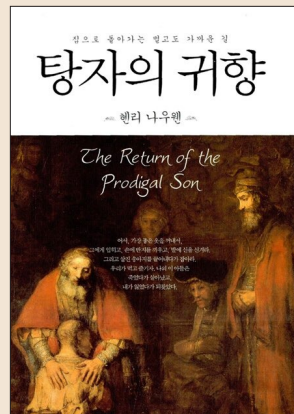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말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사실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분명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헨리 나우웬은 ‘탕자의 귀향’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과거에 나는 감사함이 받은 선물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라고 늘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감사함이 또한 훈련을 통하여 살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훈련으로서의 감사는 의식적인 선택을 뜻한다. 나의 감정과 느낌들이 아직도 상처와 회한 속에 잠겨 있는 때에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운 일이다. 비난을 받고 아직도 내 마음이 회한 속에서 응답할 때조차도, 나는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다. ...감사하는 선택은 어떤 실제적인 노력 없이는 거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다음의 감사하는 선택은 조금씩 더 쉬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 더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하게 된다.”

나우웬의 말처럼 감사의 삶은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지라도,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선택할 때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저의 간절한 기도제목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은혜’가 주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렘!

5:16-18 speaks about our attitude of faith. When we look at our surroundings, there are certain situations where it is extremely hard to be grateful. However, the Bible tells us to choose to be grateful/thankful. Henri Nouwen writes in his



book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n the past, I always thought that gratitude was a natural response to realizing the gift I was given. But now I understand that gratitude is also something that

can be lived out through training... Gratitude as a discipline implies a conscious choice. I can choose to be thankful even when my emotions and feelings are still engulfed in hurt and remorse. It's amazing how many opportunities there are to choose gratitude instead of complaining. Even when I am criticized and my heart still responds in remorse, I can choose to be grateful. ... Gratitude choices are seldom made without some practical effort. But each time I make that choice, the next grateful choice becomes a little bit easier, a little bit more liberating, and a little bit more self-aware.”

As Nouwen said, a life of gratitude can be seen as a choice.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be grateful for everything, you can choose to be grateful. How grateful are we today? My sincere prayer is that we have the right attitude to be thankful at all times because the Lord gave His life for us. Blessed be the Lord Almighty.

# 백예지 선생님

Ms. Yeji Baek



**HIS**  
**Spotlight**

03

## 백예지 선생님

Ms. Yeji Baek



9B HR, MHS Math Teacher  
9B 담임, 중고등 수학 교사



### Q. 자라온 배경과 HIS로 오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Q. Please share your background and how you came to HIS.**

초등학교 수학시간에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7에서 3을 빼도 7이고, 5에서 1을 빼도 5라는 대답만 되풀이하다 보니 선생님께서는 빨간 색연필로 0점이라고 표시한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빼는 것은 그 숫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7에서 3을 뺀다면 3이 없다면 7만 있잖아요.” 부모님께 한참을 설명하니 100점 시험지로 고쳐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존중해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믿음 안에서 아이들과 가까이 할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기독교 대안학교인 디아글로벌학교(원동연 박사 설립)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20대의 열정과 패기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한 좋은 선후배

I was discouraged after my math class. My teacher gave me back my test sheet that marked 0 point with a red pen. I answered that subtracting 3 from 7 gives 7, and that subtracting 1 from 5 gives 5. I ran home and told my parents, "But subtracting means taking away the number, right? Subtracting 3 from 7 means taking 3 away, so 7 remains." After I explained my answer, they fixed it to 100 points. I could experience the love from my mother and father who respected a child's voice.

Also, I learned from my parents who served as a pastor in ministry and shared love to others. So I also dreamed of becoming a teacher who shares love with students.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I sought to get closer to children in faith. So I applied to a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DGA Global Academy, established by Dr. Dong Yun Won) and became a teacher there. During my time as a young and passionate

교사를 만나며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혼으로 교사 일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고 여유가 생기면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HIS와 함께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teacher, I had the chance to meet lots of children. I also received training from other senior teachers.

However, I had to take a break from work for a while after getting married. I enjoyed bringing up my two children. But the calling from God was always in my heart.

After they grew up to certain ages, I thought more deeply about my future. I started to pray for the time that God would call me for a purpose. One day, He led me to a path I had never thought of. Joining HIS at the right time helped me realize once more that God gives us the best thing in His timing.

## Q.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요?

### Q. What kind of work do you do and what do you expect through it?

저는 9B반의 담임교사와 중학교 수학 교사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9학년에 학생들과 저와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한 친구들을 통해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수학 수업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 또한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I am joyfully teaching as a 9B homeroom and middle school math teacher.

God has prepared 9th grade students passing through a critical period to meet me as their teacher. I wonder how God will use me and what message He will allow me to speak to my students.

Also, I am excited to see what He will do wh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I meet in math classes.





## Q.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나눠주세요.

### Q.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은 저의 교육관을 세워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인 지력,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심력,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할 수 있는 자기관리력, 남을 섬길 수 있는 인간관계력”

우리는 아이들에게 5가지의 능력을 골고루 길러주는 전인격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등의 영양소가 아무리 풍부해도 칼슘 하나가 부족하면 식물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이 우리의 아이들의 실력을 발휘하는데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더라도 지혜가 없다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의 말씀처럼 자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빛낼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Lk. 2:52)

This verse influenced me greatly on developing my educational values.

"Intellectual strength by knowing God properly, mental strength by following the heart of Jesus, physical health to practice right actions, self-management skills to distribute energy, strength in relationships to be able to serve others."

I believe that we should teach students to develop these 5 strengths in a whole-person education.

Liebig's "Law of the minimum" states that what makes a plant grow is not the overflowing nutrients but the most deficient ones. No matter how much nitrogen or phosphate the plant keeps, it cannot grow according to its original design if it lacks calcium.

This rule also applies to children's growth. Even if they have full knowledge, or a sharing heart, they cannot work it out if they are not healthy. Without wisdom, even a kind heart that serves others cannot be helpful.

I ask for all to pray that students may fully develop their God-given talents to shine by doing their best according to the above Bible verse.

## HIS Parents T-Time

HIS Parents T-Time

스승의 날

Teacher's Day

제 7회 감사 편지 공모전 참가

The 7<sup>th</sup> Appreciation Letter Contest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가르침에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General  
News**

04

## HIS Parents T-Time

By 백하민 | 교감 (교장 직무대행)

Dr. Hamin Baek · Vice Principal (Acting Principal)



학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차(Tea)를 같이 하듯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주제들을 함께(Together) 성찰하고(Think) 나누며(Talk) 실천해보는(Try) 프로그램인 HIS Parents T-Time이 현재 일곱 그룹으로 풍성하고 의미있게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HIS Parents T-Time, a program in which HIS parents gather in small groups in a warm and comfortable atmosphere like a *Tea* meeting and *Think and Talk* about various subjects and *Try* out what they learn *Together* to become God-pleasing parents, is currently progressing richly and meaningfully in seven groups. Please pray that this program will settle well and that many more parents will participate in the future.

Have a happy Teacher's Day

사랑하는 HIS 선생님들 ♥ 늘 감사합니다

학부모회



## 스승의 날

### Teacher's Day

By 김진실 | 대외협력

Ms. Jinsil Kim · External Relations Specialist



올 해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밤낮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어린 편지와 카드, 화사한 현수막, 아름답고 다채로운 간식과 선물을 준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섬겨주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선생님들께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In commemoration of this year's Teacher's Day, HIS students and parents prepared heartfelt letters and cards, a bright banner, and beautiful and colorful snacks and gifts to express their gratitude for the hard work of HIS teachers who have been busy teaching and caring for students day and night. Thank you, Teachers, for all your faithful service. Thank you, Students and Parents, for making this precious time for them!



# 제7회 감사 편지 공모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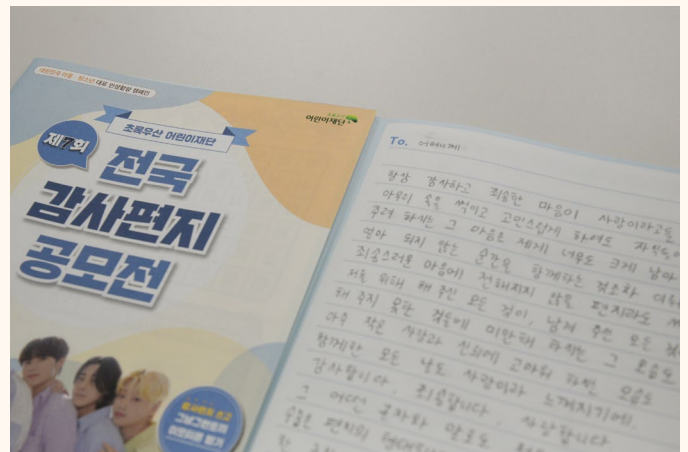
## The 7<sup>th</sup> Appreciation Letter Contest

By 최세연, 중고등 교무디렉터 | 조하나, 초등 국어/사회 교사

Ms. Sei Yeon Choi · MHS Academic Director | Ms. Hana Jo · ES Korean/Social Studies Teacher

우리 학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최하는 전국 감사 편지 공모전에 전교생이 2년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감사 편지”라는 슬로건의 제7회 공모전 참가를 위해 중고등학생들은 5월 4일에, 초등학생들은 5월 11일에 학교에서 함께 편지를 쓰며 부모님, 조부모님, 선생님, 친구, 코로나로 정말 수고하신 의료진 등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며, 나아가 함께 살며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All HIS student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ppreciation Letter Contest, hosted by the ChildFund Korea, for two consecutive years. To participate in the 7th contest with the slogan “an appreciation letter that makes both the writer and recipient happy,” MHS students wrote appreciation letters on May 4th and ES students on May 11th. As they wrote the letters, all students had a meaningful time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ir parents, grandparents, teachers, friends, medical staff who have worked so hard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and others. We hope that through various activities like this, our students will be sincerely grateful, express their gratitude properly, and live and share with others as they grow.



# 학부모 교사 상담 주간

PTC(Parent Teacher Conference) Week

# SKAC 중학교 농구 결승전

SKAC MS Basketball Finals



## 학부모 교사 상담 주간

### PTC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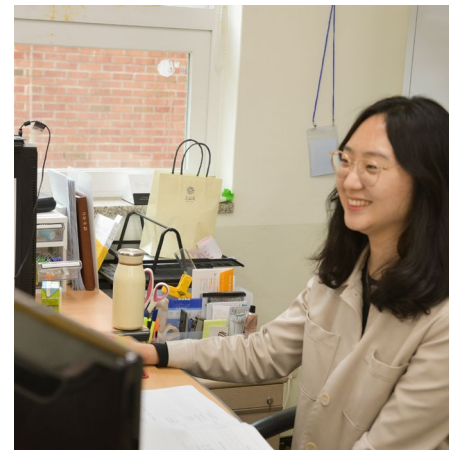
By **곽인옥 | 교무부장**

Ms. In Ok Kwak

MHS Academic  
Team Leader

1학기 학부모 교사 상담(Parent-Teacher Conference: PTC) 주간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교사 당 최대 32명까지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각각 15분간 자녀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돕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처음 PTC를 해본 한 영어 선생님은 상담을 한 부모로부터 “전라도 광주에서 포항으로 아들을 보내놓고 가까이서 챙겨주지 못해 안쓰러웠는데 선생님과 상담 중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싶어하는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져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2학기에도 PTC가 진행될 예정이며, 학부모님과 선생님 모두에게 더욱 알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uring May 9th-13th, the PTC(Parent-Teacher Conference) Week was held online. One teacher could be assigned up to 32 parents. Teachers had a deep conversation with each parent for 15 minutes to mutually understand the student's progress at school. A new English teacher received a sincere message from a parent that “I was worried after sending my child from Gwangju, Jeollanam-do to Pohang. But after the PTC, I was grateful for the passion of teachers desiring to guide students with love and kindness.” The PTC Week will be held next semester again, and we will do our best to make it a meaningful event to both parents and teachers.





## SKAC 중학교 농구 결승전

### SKAC MS Basketball Finals

**By Mr. Tim Northe**

7B Homeroom, MHS P.E., Math, Social Studies Teacher

5월 13일, 중등 학생들은 SKAC 농구대회 최종 결승전을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오전 7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일정으로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모두 늦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남학생들은 부산국제외국인학교(ISB)로, 여학생들은 부산외국인학교(BFS)로 이동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 학생들은 처음으로 체육관에서 경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4개의 각 팀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기대한 만큼 도달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의 태도와 결의는 훌륭했습니다. 여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끝까지 임하여 실력을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학생들 역시 최선을 다하였으며 A팀은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쉽게도 최종 결승전까지 진출하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즐겁게 농구 경기에 임하며 이윽고 한 계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을 더욱 기대합니다.

On May 13th the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basketball team traveled to Busan for the final tournament. Even though the students had to get up early and be at school by 7am, they were all there on time and excited to go. We took the bus to the International School of Busan where the boys got off and then the girls moved on to Busan Foreign school. For many of the students it was a new experience to play in a gymnasium. The four teams each played the best they could. Overall our results were not so good but the attitude and determination of our students was excellent. The girls never gave up trying and improved with every game. They began to understand better what they needed to do in each game. The boys also did their best and the A team was able to win a couple of games. They were disappointed as they did so well in the first tournament but this time were unable to win all their games and so missed out on playing in the final. It was a good season of basketball for the players and it was so nice to finally be able to complete a full season again. We look forward to next year.

# 학부모 TCI 검사 해석 및 설명 상담 진행

Parent TCI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ssions

#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TCI 검사 해석 방법 개별 지도)

Peer Counseling Group Activity

(Individual Lessons on Interpreting TCI Test Results)

---

By 장정은 | 상담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Counselor's  
Office News**

06

# 학부모 TCI 검사 해석 및 설명 상담 진행

## Parent TCI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ssions



5월 9-13일까지 신청하신 열다섯 가정의 TC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상담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해석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기질을 알고 이해하며, 수용할 부분과 조절할 부분을 의논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6-31일에는 TCI 검사를 신청하신 학부모님의 자녀 대상으로 검사 해석 상담이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We had TCI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ssions both offline and in zoom with 15 parents who had applied from May 9-13th. By analyzing their test results, we helped the parents understand their own temperament and their child's temperament and discussed with them which parts should be accepted and which parts should be moderated. We had time to figure out wise methods that help the parent and his/her child love each other in God's presence. During May 16-31st, students whose parents applied for TCI testing will have individual TCI test result Interpretation sessions.

##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TCI 검사 해석 방법 개별 지도)

### Peer Counseling Group Activity (Individual Lessons on Interpreting TCI Test Results)

**일정** 5월 4일 ~ 5월 31일

#### 활동

- TCI 검사에 대해 이해하기
- TCI 검사 결과 해석 방법 배우고 직접 해보기
- 자신의 기질의 강점 활용하고 조절하는 법 배우기
- 구체적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 배우기
- 실천 계획 점검 하기

**Date** May 4th ~ May 31st

#### Activities

- Understand a TCI test
- Learn to interpret TCI results and practice
- Learn to control and utilize one's temperament
- Learn to make concrete strategies and implement them
- Check practice plans

# 긍정심리기반 진로코칭 프로그램 진행

## Career Coaching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한동대학 상담대학교 이은혜 교수님의 지도로, 신청한 학생들과 긍정심리기반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을 탐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or Lee Eun Hae (Handong Global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 Social Welfare), students are learning more about themselves and their future courses through the Career Coaching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일정** 4월 28일 ~ 5월 24일, 일주일에 한 번

**Date** April 28th - May 24th, once a week

### 활동

### Activities

- CBT 성격강점 검사로 강점 캐릭터 만들기
- MBTI 성격유형 프로파일 만들기
- U&I 학습성격유형검사로 학습유형성격별 특징 이해하기
- 직업선호도 검사 해석 및 선호직업 탐색하기
- 새로운 직업 만들기
- 진로 매트릭스
- 나만의 진로로드맵 만들기

- Make strength character with CBT personality strength test
- Make MBTI personality profiles
- Understand features of learning type with U&I learning type test
- Interpret career preferences and find preferable careers
- Create new careers
- Career matrix
- Make my own career road map



다들 평이한 글  
 가진 속력으로  
 다들 읽니다  
 봄 나 무쳐라  
 2020 바쁜 달  
 이 세상 글

# 백일장 공모전

## Writing Contests

# 5월 한정 독서이벤트 (진행중)

## Reading Event (only in May) (in progress)

By 이희정 | 도서관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달팽이 학교  
 이경목시, 주리 그림, 안선재 번역  
 811.8 이74c  
 KM013147

난 빨강



화 캉하라,

네 앞에 포켓처럼 날리!

12살, 4월

# Library News

# 07

이희정





우리의 봄은 순한 빛깔을 입고 각각의 리듬으로 제 곡조를 뽑아내고 있지요. 교정 주위를 잠시 둘러 보면, 어느새 잎을 떨구는 아카시아가 제 몸보다 짙은 향을 훔날리고 있고요, 여기 3층 도서관 통창을 내다보면 산딸나무가 초록과 이구동성으로 새하얀 잎 맞춤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바쁜 가운데 점점 환해지는 잎새처럼 자신의 리듬을 실어보면 좋겠습니다. 도처에서 백일장으로 부르는 봄 노래를 청해웁니다. 시든, 수필이든 제가꿈 곡조로 펼쳐서 풀어보면 환한 번짐이 되고 나눔이 될 테지요.

Our spring is singing its tune with every rhythm of its own. As we take a walk around, a cascading acacia flutters its aroma all over the campus. Through the open windows of the school library, I can hear flowering dogwoods singing in harmony with green trees. I hope our students may also find their brightening rhythm amidst their busy schedule. We can now sing the song of spring by writing. Whether it be a poem or an essay, when we sing it as a melody, it will seep out as bright light and become a voice to share.

# 중앙일보 학생 시조 백일장

The JoongAng Student Korean Shijo Writing Contest

## 제8회 중앙학생시조백일장 개최

주관 | 한국시조시인협회 주최 | 중앙일보 후원 | 교육부

### 1. 목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시인 시조 창작 활성화 및 대중화를 추진하고 시조문학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문학 및 글로벌 문학으로 발전시키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비대면 방침으로 전환하여 창작 발표의 장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 2. 추진 계획

- **응모 자격**: 초·중·고등학생
- **응모 편수**: 1인 시조 작품 3편
- **응모 기간**: 2022년 5월 1일(일)~5월 31일(화)
- **응모 요령**:
  - \* 응모 작품은 발표(신문, 인터넷 등)되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 응모작에 이름, 학교명, 학년,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지도교사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 \* 응모는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우편 접수는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합니다.
  - \* 원고는 A4 용지에 작성한 것만 접수 가능합니다.
  -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3개월 동안 (사)한국시조시인협회가 보유한 뒤 폐기합니다.
- **원고 보낼 곳**:
  - \* 이메일 접수: hankusijo@hanmail.net
  - \* 우편 접수: 우)0313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29(낙원오피스텔 504호)
- **홍보**: 《시조미학》, 초·중·고 교사 및 학생
- **결과 발표**: 2022년 6월 13일(월)
  - \*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 \* 한국시조시인협회 홈페이지(www.hankusijo.com)
- **문의**: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 \* 전화: 02-745-8474
  - \* 이메일: hankusijo@hanmail.net

### 3. 수상 내역 관련 및 시상일

2022년 7월 23일(토) 시조의 날 기념 행사일 예정

중앙학생시조백일장대회			상장명
상명	인원	상금	
대상	초·중·고 각 1명	50만원	교육부장관상
최우수	초·중·고 각 1명	30만원	중앙일보사장상
우수	초·중·고 각 2명	10만원	중앙일보사장상
가작	초 20명, 중·고 각 10명	상장	한국시조시인협회이사장상
우수교사상	1명	"	교육부장관상
우수학교상	1개교	"	중앙일보사장상

#### • 시조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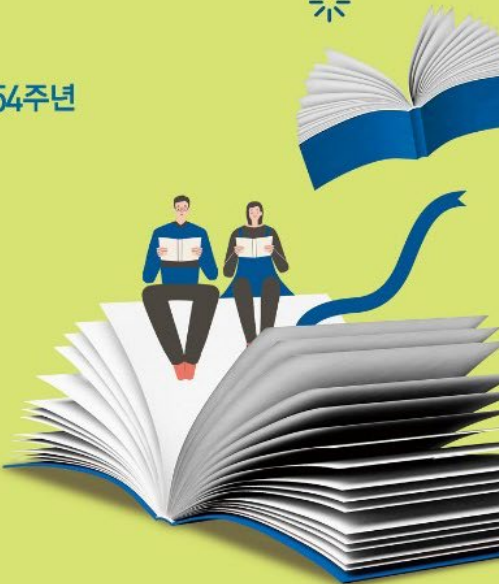
heejunglee@his.sc.kr로 글을 보내주시면 첨삭 후 응모해 드립니다.

#### • 3 Shijos

Send to heejunglee@his.sc.kr then it will be applied after proofreading and editing.

# 포스코 주최 제35회 쇠물백일장

The 35<sup>th</sup> POSCO Korean Writing Contest



## 쇠물 백일장 공모전

POSCO 창립54주년  
제35회

(주)POSCO가 후원하고 (사)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가 주관하는 쇠물백일장이 올해로 35회를 맞았습니다. 포항문인협회는 지역민의 문화와 교육 및 문학적 소양을 넓히는데 이바지하고 있는 POSCO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응모를 기다립니다.

글 제

초등부  
거울, 구름

---

중등부  
신호등, 못(쇠)

---

고등부  
숟가락, 철길

---

대학·일반부  
바늘, 부채

대상	부 문	시 상	상 별	인원	상금 및 상품	상 별	인원	상금 및 상품	
대상	1	1,000,000원	장원	2	각 300,000원	장원	2	각 300,000원	
대학 일반부	차상	2	각 500,000원	차상	2	각 200,000원	차상	2	각 200,000원
	차하	4	각 300,000원	차하	4	각 100,000원	차하	4	각 100,000원
	참방	4	각 200,000원	참방	4	각 70,000원	참방	4	각 70,000원
고등부	참방	4	각 100,000원	장원	2	각 300,000원	장원	2	각 200,000원
	차상	2	각 300,000원	차상	2	각 200,000원	차상	2	각 100,000원
	차하	4	각 200,000원	차하	4	각 100,000원	차하	4	각 50,000원
			참방	4	각 100,000원	참방	6	각 30,000원	

**응모기간** 2022년 5월 20일 ~ 6월 10일(소인유효)

**응모방법** 이메일 : [phmunhak@naver.com](mailto:phmunhak@naver.com)  
우편 : 37664 포항시 남구 효자로 70 (효자동 월빙아울렛2층) 삼우애드림

**발 표** 2022년 6월 24일(포항문인협회 <http://cafe.daum.net/pohangliterature>)

**시 상 식** 추후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 제목을 변경하거나 부제를 달면 안 됩니다.
- ▶ 메일 발송 시 제목 '쇠물백일장 공모전 운문(산문)'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라며, 성명·연락처·주소(학생은 학교·학년)는 작품 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 공모전 입상작 및 표절작품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며 상금을 회수합니다.
- ▶ 쇠물백일장에서 '장원'이상 수상자는 동일부문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포항문인협회(<http://cafe.daum.net/pohangliterature>) 백일장 공모 & 문의

주관 (사)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후원

시나 산문 중 1편

• 시제

초등 거울, 구름

중등 신호등, 못(쇠)

고등 숟가락, 철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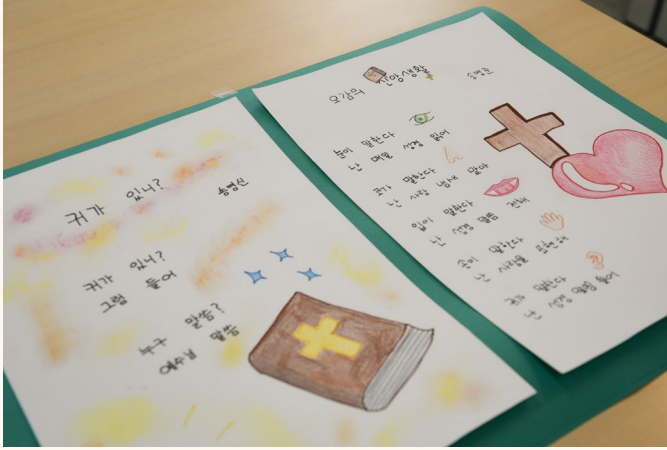
1 poem/prose

• Topics

ES mirror, cloud

MS traffic light, nail(steel)

HS spoon, railroad



## 5월 한정 독서이벤트

행사기간 : 5.1 - 5.30

- 책 대출 - 매일 선착순 10명에게 책갈피 및 레모나 증정
- 서평 및 북튜브 영상 - 월 10명에게 사인본 시집 증정
- 한 줄 감상평 쓰기 - 월 30명에게 문구류 증정

운영방법 : 경북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출 도서 서평 작성시 기록 인정

문의사항 : 도서관 이희정, heejungle@his.sc.kr / 054-260-1742

## Reading Event (Only in May)

Event period : 5.1 - 5.30

- Book checkout: 10 people will be awarded a bookmark or Lemona everyday.
- Book review or booktube: 10 people will be awarded an autographed poetry book each in May.
- One-line reflection: 30 people will be awarded a stationery item in May.

How to apply : Gyeongbuk Reading Education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Submit a book review of the book you have loaned at the homepage

Contact : Librarian Hee Jung Lee, heejungle@his.sc.kr / 054-260-1742



서평 등록 · Apply Book Review <https://bit.ly/3s3aI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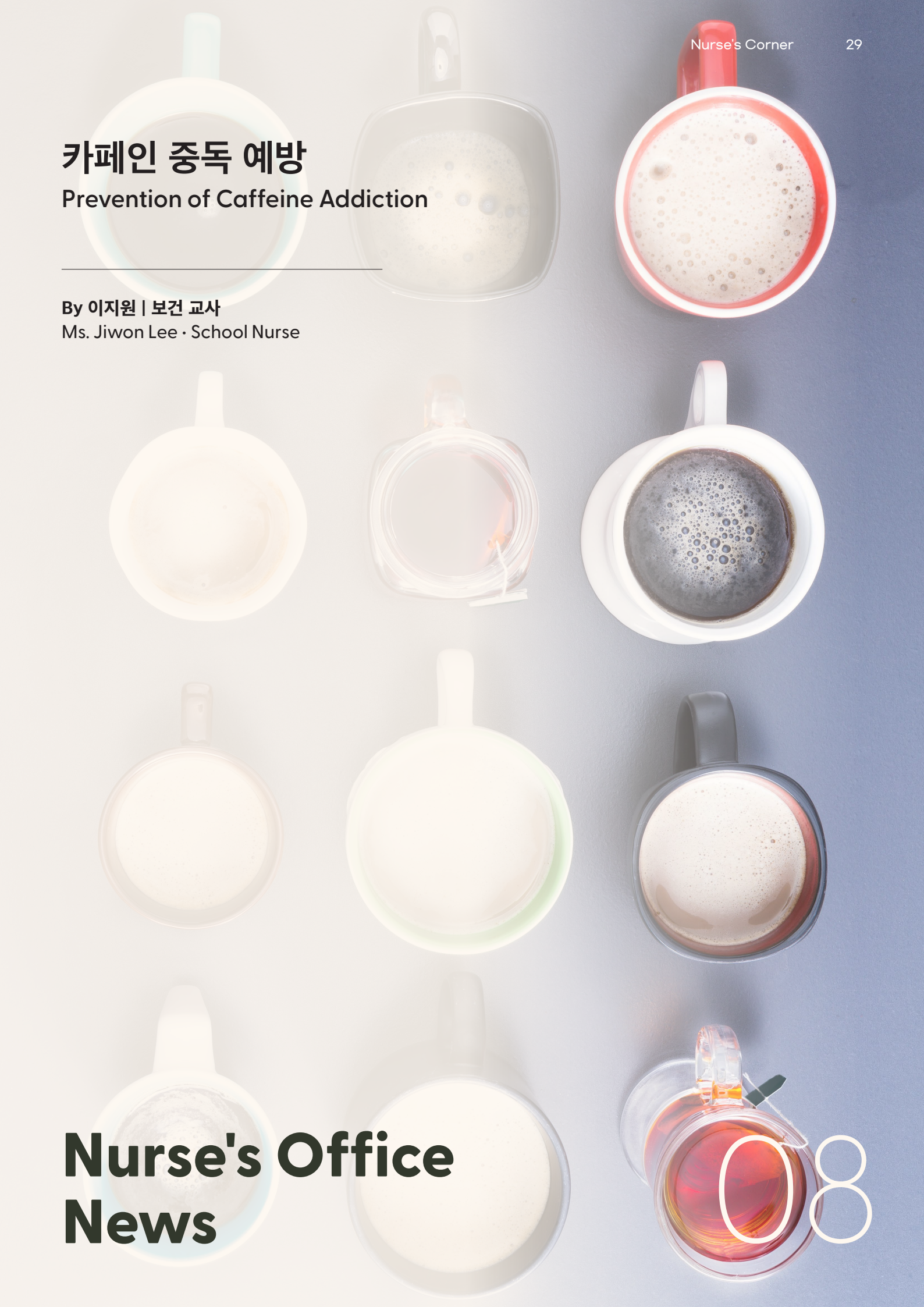
# 카페인 중독 예방

## Prevention of Caffeine Addiction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 Nurse's Office News

08



다음은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몇몇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새벽에 커피 3잔 마셨어요.

심장이 쪼이는것 같아요.”

“요즘 매일 몬\*터 1개씩 먹었어요. 어제는 3개 마셨어요. 시험기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The following are some students' expressions about having high caffeine drinks.

“I had 3 cups of coffee yesterday. My heart seems to contract.”

“These days, I drink one M\*\*ster every day. And I had 3 yesterday. I can't help it because it's my exam period.”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카페인에 대해 알아 봅시다.

카페인은 각성효과가 있어 일시적으로는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주지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내에서 12시간 이상 남아있으면서 불면증을

유발하여 신체리듬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Let's learn more about these beverages.

Caffeine has an awakening effect that temporarily

makes you stay awake and concentrate, but it does

not provide energy to our bodies. Also, it may cause

insomnia and disturb your biorhythm as it remains

inside the body for more than 12 hours.

## 카페인은 몸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What kind of reaction does caffeine provoke inside our body?



뇌 Brain

뇌를 각성시켜 불면증, 행동불안, 정서장애, 손 떨림 유발함

Awakens the brain and causes insomnia, anxiety behavior, emotional disturbance, shaky hands



눈 Eyes

집중력이 잠시 향상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더 피로해짐

A temporary improvement of concentration but later becomes more tired



심장 Heart

심장박동수를 증가시켜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Increases the heart rate and raises blood pressure



간 Liver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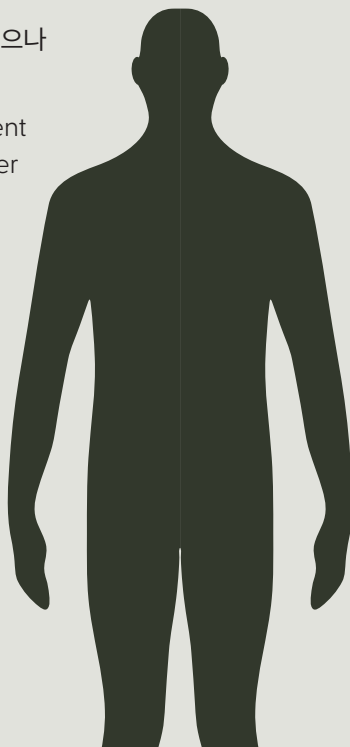
Interferes the absorption of iron and causes anemia



장 Intestines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뼈 성장이 지체되며,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음

Obstructs calcium absorption which slows bone growth and can lead to osteoporosis



## 나는 카페인 중독인가요? (4가지 이상 해당되면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Am I addicted to caffeine? (If you check more than 4 items in the following, you may be so.)

-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한다
  -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 근육이 자주 뭉치고 쥐가 잘 난다
  - 평소 자주 불안하고 예민하다
  - 카페인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다
  - 소변이 자주 마렵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
  -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
  - 마음이 조급하고 생각이나 말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
- 
- I have a heartburn or have diarrhea
  - I can't sleep well at night
  - I have a lump in my muscle and often get a cramp
  - I'm usually anxious and sensitive
  - I'm sleepy or I get a headache if I don't have caffeine
  - I use the restroom more than usual
  - My heartbeat pounds more than usual and is erratic
  - I get impatient and my thoughts and speech are unorganized

## 카페인 중독 예방수칙

### Caffeine Addiction Prevention Guidelines

- 음료수를 섭취할 때에는 음료수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을 확인 후, 하루 최대섭취량 (내 몸무게 X 2.5 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기
- When consuming a drink, check the caffeine content on the beverage and be careful not to exceed the daily intake limit (my body weight X 2.5 mg).
-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카페인 음료 대신 물 마시기
- Drink water instead of caffeinated beverages when you feel sleepy or thirsty.
- 피로할 때에는 카페인 함유 식품보다는 과일이나 채소, 생과일 주스 등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기
- When you are tired, eat foods rich in vitamins, such as fruits, vegetables, and raw fruit juice, rather than foods containing caffeine.
- 평소 규칙적인 수면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 Maintain health through regular sleep and moderate exerc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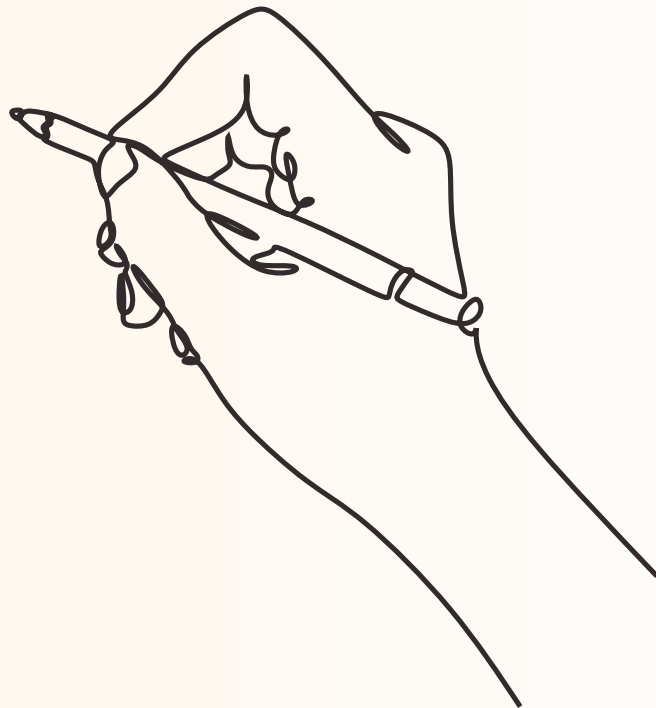
# 독후 감상문

## Reading Reflection

---

By **곽인옥** | 10학년 국어교사

Ms. In Ok Kwak · Grade 10 Korean Teacher



# Creative Corner

# 09



10학년은 한국단편소설 서른 다섯 작품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한 학생의 글을 소개합니다.

10<sup>th</sup> grade students performed an assignment of writing a reflection in response to questions after reading thirty five Korean short novels. Here is one student's reading reflection.

## 김동인의 '광염소나타'에서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나의 경험

My personal experience similar to a story in 'Sonata of a Flame' by Dong-in Kim

10A 이윤설 Yunseol Lee

광염소나타에서 백성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백성수는 천재 음악가이자, 요즘 시대에 사라진 야성미 있는 음악을 하는 엄청난 예술가이다. 하지만 그에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야성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다는 것이다. 집에 불을 지르고, 사체를 갈기갈기 찢는 등 상상도 못한 끔찍한 범죄들을 하는 것이다. 나는 책을 읽으며 처음엔 그를 생각없이 비판하였다. 아무리 자신의 목표가 있더라도 범죄는 인정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행위라며 그를 욕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책을 읽다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백성수와 다를 것이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나는 범죄를 한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모습이 과연 그와 많이 다른가? 나도 그와 같이 나의 일시적인 쾌락과 안정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지 않았나? 엄마에게 짜증을 냈던 것도, 결국 일시적인 감정으로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닌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 몰래 폰을 들었던 것도 결국 나의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 나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진짜 백성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다보니, 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도의 차이였을 뿐, 나는 내가 그렇게 욕했던 백성수와 다름없었다. 그 이후론 많이 반성하고 나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 작은 행동에도 더욱 조심하고 남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나는 백성수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이타적인 정신이 있는 참된 사람으로 나아가고 싶다.

I have had a similar experience with Seong Soo Baek in 'Sonata of a Flame.' In the book, he is a talented musician. He is a gifted artist with a wild taste of music, which is rare nowadays. But he has one fatal problem. He recklessly pursues his wildness without a limit. He puts fire on a house, rips a dead body, and commits other horrible crimes. At first, I criticized him while reading the book. Even though he had a goal to achieve, I firmly took my stance that committing crimes as he does cannot be tolerated.

But while I continued, I reflected on myself. Was I truly different from Seong Soo Baek? I never committed a crime as he does or made a bad influence on society. But did that itself make me different from him? Haven't I had others suffer as I chose to delight myself? When I was irritated with my mother, wasn't I seeking pleasure for myself while upsetting her? Or even when I secretly touched my cell phone, wasn't I looking for temporary entertainment? Then can I actually say that I am a better person than Seong Soo Baek?

As I thought about these questions, I felt pathetic and dirty inside. I realized that I was no different from Seong Soo Baek; it was only a matter of degree. Later, I reflected on myself and tried to change my attitude. I am trying my best to be careful of small actions and become more considerate of others. From now on, not like Baek Seong soo, I want to live as a true person with an altruistic mind.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